

# ‘이열치열’ 백숙 한그릇이면 삼복더위도 두렵지 않다

‘푸드탐방’...유네스코 무등산권역 로컬음식

(3)유진농원 ‘무등산 한방 블루베리 닭백숙’

무등산서 키운 청정 토종닭과 몸에 좋은 7가지 재료 듬뿍 “음식이 약으로”...젊은층 건강 위해 새로운 먹거리 개발

“젊은 사람들이 치유 음식 먹고 약으로 병을 치료하기 전에 음식으로 몸 건강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무등산 아래 석곡로에서 ‘유진농원’을 운영하는 문장식 대표는 김점숙 대표와 함께 손님들에게 건강한 무등산 한방 블루베리 닭백숙을 제공해 오고 있다.

원래의 이름은 한방 닭백숙이었지만, 최근 문 대표가 블루베리의 효능과 젊은 층의 입맛까지 사로잡기 위해 신 메뉴를 개발했다.

그가 만드는 한방 블루베리 닭백숙은 무등산 자락에서 키운 닭과 황기, 인삼, 대추, 블루베리 등 8가지 재료가 들어가며 광주 최초 지오푸드로 부터 2가지(청국장·닭백숙) 음식을 함께 인증받았다.

‘지오푸드’는 세계지질공원 지역향토 음식 브랜드로, 지질공원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된 농산물·음식·음료에



문장식 유진농원 대표

국제적 브랜드를 적용해 지질공원 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공식협력업체다.

문 대표의 한방 닭백숙을 제공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으로, 그때부터



블루베리, 황기, 인삼, 대추 등 몸에 좋은 7가지 재료와 무등산에서 키운 토종닭을 1시간 이상 푹 삶아낸 유진농원 ‘한방 블루베리 닭백숙’

지금까지 건강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무등산 토종닭으로 만든 한방 블루베리 닭백숙은 고단백 식품으로 세포조직의 생성은 물론 각종 질병을 예방해 주

고,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면역력 강화식품이다.

이러한 한방 블루베리 닭백숙을 조리하는 과정에는 1시간이 걸린다.

무등산 토종닭을 물에 깨끗이 씻어

압력솥에서 7가지의 한방 재료를 넣고 1시간을 푹 삶아야 하며, 이때 불 조절을 잘해야 질기지 않은 한방 닭백숙이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닭백숙은 주변에 키운

양파와 가지 등 자연재료를 통한 음식 10여 개를 곁들여 손님상에 올려진다.

이곳은 한방 백숙을 포함한 육탕, 황칠 닭, 닭볶음탕 등 닭으로 하는 요리가 많아 한 달 평균 70-80마리 닭을 구입해 사용하지 않던 농장 업주에게 사고나 일이 생길 때에는 직접 닭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구입해 온 닭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잡으면 어려움이 크지만 문 대표는 건강한 음식을 찾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한 상 차림을 선보이기 위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한다고 한다.

그의 향후 계획은 젊은 사람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곳은 대체로 건강을 생각하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찾는다”면서 “건강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는 젊은층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이나 외곽으로 음식을 먹으러 가는 젊은이들에게도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 연구 개발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무등산 자락의 청정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몸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연태호기자

## 온라인 입점 中企 과반 “법적규제 필요”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 지적

숙박 앱,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과반수가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 및 숙박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천1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 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조사됐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천233원, 숙박 앱 107만9천300원, 배달 앱 10만7천780원으로, 숙박 앱의

경우 노출 광고비와 쿠폰 광고비로 각각 월평균 82만2천200원·25만7천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배달 앱 입점업체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가능 범위는 반경 3.1km로, 품목별로는 회·초밥이 3.9km로 최장, 샐러드가 2.0km로 최단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는 일부 배달 앱의 기본 광고(노출) 반경(1.5km-3km)과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 앱(7.5%), 배달 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이었고,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복수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 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 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이었다. /정은솔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대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불필요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목표는 2만1천400대”...GGM, 캐스퍼 전기차 양산 초읽기

15일부터 본격 생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전기차 생산이 애초 목표보다 느는 등 양산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GGM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캐스퍼EV의

올해 생산목표를 2만1천400대로 정했다. 애초 계획했던 1만7천400대보다 4천대(23%) 늘어난 대수다.

캐스퍼EV는 지난 2월 시험 생산에 들어가 이미 300여대를 생산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단단한 이미지와 확장된 실내 공간, 주행 안정성에

1회 충전 시 315km에 달하는 운전 거리를 확보하는 등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멀리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 추가 생산 기대로 GGM의 올해 생산 대수는 애초 4만8천500대에서 5만3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누적 생산량은 13만대를 넘어섰다. /임채만기자

## 여주 ‘유탑 스마트 물류센터’ 사업설명회

유탑그룹, 사업비 5천억 매머드급 규모

종합건설사 유탑그룹이 ‘유탑 스마트 물류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물류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유탑그룹에 따르면 전남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화주사와 증권사,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1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여주시 연라동 일원에 위치한 물류센터는 축구장 28개 크기로 연면적 19만9천997㎡, 지하 2층-지상 4층의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한다. 사업비는 5천억 원에 달한다.

주변에 남아주 IC와 여주 J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수원, 성남, 용인, 하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시를 1시간 이내에 이동해 1일 최대 3회 배송이 가능하다. 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차 지점에 자리 잡아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연계 거점으로 진출입 여건도 우수하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건축 허가를 받아 오는 11월 착공 예정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은솔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문의 : 062)650-2099